



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.

하지만 문득 위에서 미술사에 있어서 추상화와 더불어 현대미술의 발달사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는, 색채 구성 배합만으로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의 출현이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. 무엇보다 최재호씨의 “부산에 가면”이라는 노래에서 나타내듯이 높은 성량과 기교가 아닌 한마디가 담아 내는 말씀의 무게를 구현할 수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